

보도일시	2026. 4. 29.(수) 14:00		담당부서	대전RISE센터 (혁신기획팀)
			부 서 장	권흥순(042-251-2880)
			팀 장	김은영(042-251-2881)
사진 ○	영상 ×	https://www.djtp.or.kr/	담 당 자	이우정(042-251-2884)

대전TP, 태국한국교육원과 한-태 교육 협력 강화 ‘맞손’

- 국제교류 협력 기반 구축...유학생 유치·정주 연계 확대
- 중등-대학 연계 모델 논의...글로벌 인재양성 협력 본격화

대전테크노파크(원장 김우연, 이하 대전TP)는 29일 충남대학교에서 태국한국교육원(원장 박성하),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와 공동으로 ‘태국-대전·충남지역 국제교류 협력 간담회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태국 중등학교와 대학이 대전·세종·충남지역 대학 및 전문대학과 보다 체계적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는 태국 교육부 관계자와 중등학교 교장단,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 대전·충남지역 8개 대학 국제교류처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태국한국교육원이 제시한 ‘한국 대학-태국 중등학교 직접 연계 모델’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잠재적 유학 수요자인 중등 단계 학생들을 국내 대학과 직접 연결하

는 드문 사례로, 해외 우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학생 교류 및 연수 확대 △교사 및 교수 교류 활성화 △대학·전문대학 유형별 유학생 확대 △ 태국 유학생의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 취업·정주 연계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정겸 충남대학교 총장은 “이번 만남은 학생 교류와 공동 프로그램 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자리이며, 나아가 한국의 우수한 교육 모델을 해외로 확산하는 ‘K-Edu 수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נות따끼อัน 응엔ยู엥(NUDTAKIEN, NGERNYUANG) 태국 교육부 기초교육위원회 부국장은 “태국은 많은 학생들이 정규 교과로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국 학교 간 실질적인 교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박성하 태국한국교육원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보다 많은 우수한 태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오고, 나아가 한국에서 취업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며 “태국한국교육원은 지속적으로 한-태 양국 간 교육 분야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고 밝혔다.

김우연 대전TP 원장은 “지역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우수한 정주형 인재를 확보하는 것” 이라며 “이번 협약이 태국 우수 유학생의 유입을 촉진하고, 개편되는 앵커 체계에서 이들이 지역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해 대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